

'99년 국제석유시장 전망과 한국의 석유산업



니시무라

〈 일본 코스모종합연구소 조사부 주임연구원 〉

1. 머리말

1998년은 세계적으로 변동이 격심했던 해였다. 97년도 여름, 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아시아 각국에 퍼져 심각한 경제불황을 초래했고,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견인차로서 글로벌 이코노미를 추진해 온 일본경제도, 90년에 거품이 빠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붕괴에다 정부의 정책판단미스까지 겹쳐져,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었다. 세기말을 맞이한 올 1년, 과연 아시아경제는 어느 정도로 회복할 수 있을까?

경제가 급속하게 국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98년은 금융, 자동차, 석유, 통신등, 세계적 기업의 인수합병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에너지관련 부문을 놓고 본다면, 최대 뉴스는 BP·AMOCO

의 합병에 이은 엑슨·모빌의 합병발표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서구의 대기업이 거대화·과점화의 경향을 띠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영향이 조만간 아시아에도 나타나리라고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의 석유산업은 99년에도 어려운 환경에 놓일 것이다. 98년 이후 국제원유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확실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원유가격하락은 국내 소비물가를 인하시키고 소비심리를 부추겨,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유가격하락이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떨어뜨려 시장을 격화시킬 우려도 크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제석유시장의 동향과 석유산업의 대응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석유정세속에서 앞날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지만

최근의 정보로 이 동향을 관찰해 보겠다.

II. 국제석유시장의 전망

미·영국군은 지난해 12월 17일~18일 이라크에 군사공격을 단행했다. 그 이유는, UN의 대량살상무기사찰결정사항을 이라크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행동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대부분의 국제석유전문가들은 이번의 군사행동이 국제원유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공격을 단행한 17일 당일의 WTI는, 전일대비 3.8달러 오른 12.38달러를 기록했지만 다음날에는 1.35달러 내린 11.03달러로 하락하였고 그후에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지 못했다.

97년말까지의 원유가격동향은 완만하게 하락하였으나, 98년에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떨어져, 최근에는 「원유가격 10달러시대 도래」라는 소리가 들린다.

WTI의 현물가격동향을 보면 98년 1월 16.45 \$/B에서 12월 11.45 \$/B로 5달러나(30%) 떨어졌다. 그러면, 98년 이후 원유가격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두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먼저 非 OPEC 국가의 신규유전개발에 따른 생산증대와 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한 경기후퇴·경제활동 하락으로 석유수요가 감소하는 등 생산과 소비간에 갭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생산조정(감산)으로 가격을 회복시키기 위해 98년 11월 총회를 열어 260만B/D를 감산하는 추가감산안을 상정하였으나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정안이 보류되는 등 「무기력한 OPEC」를 세계에 보여주는 결과만 낳았다. 또한 산유국의 재정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각국의 감산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않아,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감산협정을 99년 말까지 지속시킨다는 안에 대한 토의를 99년 3월 총회로 연기시켰다. 이제 국제석유선물시장의 발전에 따라 OPEC 시장 지배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정세변화 가운데 미국 에너지성은 지난 1월 8일, 다음과 같은 2000년 말까지의 단기에너지예측을 발표했다

- ① 원유가격은 98년 말 12월에 거의 저점을 통과한 후, 99년 이후는 완만한 상승을 계속하고 2000년 말에는 1배럴당 14달러대까지 회복할 것이다. 가격하락으로 생산조정이 진행되는 한편 수요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지만, 가격하락이 현저해진 지난 97년과 비교한다면 아직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다.
- ② 98년 12월 말의 원유가격은 1배럴당 9달러 25센트까지 하락했지만 99년 1월은 약 50센트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 계절 요인에 따른 변동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추세로 돌아서, 99년 말에는 13달러, 2000년 말에는 14달러 25센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일일당 평균 원유공급량은 98년대비 60만 배럴 증가하고, 2000년은 110만배럴에 이를 전망이다. 수요증가는 난방 및 자동차유류등을 중심으로 99년, 2000년에는 하루 150만배럴정도에 달해, 과잉공급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1~2년은 적어도 현상유지 할 것으로 보여진다.

III. 한국의 석유산업

한국의 석유산업은 국내외 경제적 혼란으로 수익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환율·금융위기가 기업의 재무기능에 큰 타격을 주어, 경영을 압박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의 석유산업은 타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설비투자자금을 차입금에 의존해 왔다. 특히 91년부터 93년에 걸친 제1차증설기에는 80만B/D, 그리고 95년부터 97년에 걸친 제2차증설기에는 70만B/D가 완공돼, 정유5개사의 공칭 정제능력은 97년 현재 2,438천B/D에 달했지만, 이에 따른 결과로 업계평균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게 되었다.

막대한 차입금 경영형태가 위기발생에 의해 붕괴된 결과, 한화에너지의 예로도 볼 수 있듯이, 대다수 한국기업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외자도입 혹은 그룹매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물론, 경영위기의 근본적 요인이 외부에도 있다는 것은, 현재 5대재벌에서

진행중인 구조조정문제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급격한 경제혼란이 발생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이 침체돼, 이에 따라 에너지수요가 크게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석유제품수요의 감소는 두드러져, 정부·재정경제부의 최근 경제관측에 의하면 98년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5%로, 이에 따른 석유수요도 전년도 실적대비 약 14%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진다. (석유협회보 98년 11·12월호참조) 한국의 석유산업은 템포가 빠른 국내경제성장과 맞물려 1980년 이래, 상당한 스피드의 수요증가(80~97년평균 증가율 8.6%)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액도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정부가 경제혼란에 따른 세수부족대책으로서, 석유제품에 대해 세금인상을 거듭 실시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가 혼란해 진데다가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이 시기에 거듭된 세금인상은, 석유산업의 경영을 또다른 방향에서 압박하고 있다. 98년도 후반에 들어서 한국의 거시경제지표가 상당히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고, 또한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수요의 회복은 순탄하지 않다. 그 이유중 하나는 조세부과에 따른 최종소비자가격이 비싸져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석유산업을 둘러싼 최근 정세에 대해서는 대략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경제가 회복해 감에 따라 상황을 호전시킬 요소 중 하나가 국제원유가격의 저가안정이다.

98년 11월 5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원유가, 환율, 금리의 「신 3저현상」에 의해 연간 44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을 한국재정경제부

(MOFE)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놨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신 3저효과」가 지속되면 99년도 경상흑자가 23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원유가격과 금리가 저수준을 지속하면 무역수지는 16.2억달러의 개선효과와 외채이자부담도 10억달러정도 감소한다. 또한 환율에 관해서도 특히 대달러엔화가치가 앞으로 3개월동안 115엔/\$ 수준을 유지하고 그후로도 125엔~130엔대가 지속되면 연간 17.6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신 3저효과」는 43.8억달러에 이르고 99년도 경상수지 흑자는 IMF와 합의한 200억달러보다 30억달러가 많은 23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일본경제신문사 「NEEDS일본 경제모델」의 계산에 따르면 실세가격 + 99년 1월~3월기 이후 10달러/배럴로 추이한 경우, 1년전의 20달러로 추이했다고 상정한 경우보다 99년도 국내총생산(GDP)의 실질성장률을 0.1포인트 상승시키고 개인소비도 98년도에 0.1포인트, 99년도에는 0.2포인트가 높아져, 기업의 경상이익도 감익률(減益率)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거시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석유업계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제품가격체계에서 차지하는 세율이 너무 높아, 원유가격의 하락이 석유제품수요 증가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덧붙여 한국의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율이 최종소비자가격의 약 80%에 달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보아 원유가격이 대폭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소비자가격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소폭에 그쳐, 휘발유수요를 크게 자극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게다가 낮은 원유가의 장점을 선점하는 형태로 상황이 하락, 적정폭 이상으로 하락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 붙는다. 이러한 원유가 문제에는 환율과 금리 문제의 공통점은 석유업계로서는 자기제어가 불가능하고 이것은 기업이익의 불안정화를 촉진하는 결과가 된다.

일본의 석유업계는 98년 10월 일본석유와 미쯔비시의 합병발표(정식합병은 99년4월)는 업계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스레 부각시켰다. 최근 디스플레이션 불황에 따른 시장혼미, 수요감소에서 발생하는 수급차이, 과다정제 설비와 소규모의 많은 비효율 정유공장, 과다한 주유소, 난립한 석유회사와 낮은 수익성, 어느 것을 보더라도 석유업계로서는 플러스재고는 전무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선단식 경영이 행해져 온 일본석유업계에도 본격적인 국제화시대를 맞이해 경쟁력이 요구되고 경영자는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미 일본의 외국자본 메이저계 석유회사인 옛쏘와 제네럴은 동연(東燃), 키그나스를 더한 엑슨그룹으로서 대동단결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여기에 모빌이 참여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판매의 옛쏘·제네럴과 정제의 동연을 중심으로 한 그룹간 업무 제휴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자극받아 나머지 외자계 쇼와셀, BP등도 다양한 물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바야흐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외자메이저계의 판매공세와 원유가격, 환율변동 등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계는 소수에 그치고 앞으로 격렬한 합병극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99년도 1월8일자 일본경제신문에 석유산업구조조정 특집기사가 실려, 업계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본제조업계에도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기사 내용은 드디어 일본석유업계가 생존을 내건 체질강화책에 나섰다는 점을 여실히 말해주는데 이는 주요회사의 비용절감액(약 3,700억엔)과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축소인원수 2,650명)이다.

최근 입수된 한국석유산업의 경영에 관한 증권분석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IMF위기에 의한 일시적 경영부진에서 벗어나 상장 석유기업 3개사(SK, 한화에너지, 쌍용정유)의 98년도 실적은 호전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분석가는 그 이유로서 유가·금리·원화의 「신 3저」가 호재로 작용하고 라니노에 의한 한파가 석유수요를 고조시키는 것을 들고 있다. 정제마진도 7,8월은 1달러대(7월 1.92달러, 8월 1.71달러)로 하락했지만 9월들어 2.73달러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저유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진율도 호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일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먼저 거시경제측면에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미시적인 경제측면으로는 실업률이 7%를 넘고 있고 금융면에서 회복도 더디다. 정부 및 여러 민간기관이 집계한 99년도 한국경제성장률 예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2%대를 예측하고 있는데 비해 현대증권 경제연구소와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등 민간 연구소의 예측은 각각 0.3%, -0.5%를 추정하고 있다.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예측치에 정책적인 의도가 담겨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정적인 회복에

도에 이르는 길은 아직 요원하고 석유수요회복도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맺는말

석유수급환경의 변화는 차치하고, 현재 한국석유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빅딜문제」, 즉 구조조정에 의한 재벌과 산업구조의 재편강화일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산업의 범위만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업종, 업태를 넘어선 전 산업계에 걸친 구조조정은 그 자체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한국경제 회복에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되고 있어, 기업의 체질강화로 연결될 기사회생의 타개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빅딜에 의해, 한국의 석유산업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외국계자본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석유산업경영이 종래와는 다른 참신한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동아시아에 강력한 에너지공급주체를 구축해 간다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도 새롭게 출현한 강력한 경쟁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활을 건 다이나믹한 한국의 동향에, 새로운 숨결을 느끼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구조조정문제가 일단락되면 한국석유산업의 강력하고도 새로운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